

탈무드 전승에 나타난 예수 연구

-바빌로니아 탈무드 Sanh. 43^a 를 중심으로-¹⁾

김충연 *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유대교의 대표적 문헌인 탈무드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 주제는 ‘탈무드에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신약 연구에 있어서 매우 생소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신약성서의 배경을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후 2세기 초까지만을 주로 다루고 그 이후 유대역사와 기독교의 재구성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약학자들 중 일부는 탈무드에 나타난 예수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나타난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채색된 예수이며 이것은 역사적 예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와 탈무드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될 수 없다. 시대적으로도 예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약성서는 주로 1세기 후반에 주로 기록되었지만 탈무드는 1세기 후반부터 수세기를 걸쳐 7세기경에 바벨론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언어적으로도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으

* 감리교 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이 논문은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267).

며 그 내용은 예수의 탄생, 사역, 수난,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지만, 탈무드는 대부분 이람어로 기록되었으며 내용도 유대교 율법에 대한 해석과 토론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쉐퍼(P. Schäfer)가 주장한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에 신약성서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려진 예수와 탈무드의 보도 중 어느 것에 역사적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며 또한 어려운 일인 것은²⁾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유대교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기독교를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서의 보도만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교 가능한 문헌들과 전승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신약성서의 보도를 읽고 기독교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유대교는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묘판(苗板)과 같아서 유대교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으며,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유대교와의 관계 및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³⁾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 특히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묘시는 유대교 안에 반영된 예수와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⁴⁾ 본 연구의 주제가 그 학문적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의 신약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므로 바라기는 이 연구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토대가 되길 바라며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 예수(출생, 죽음,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에 대한 많은 다양한

2) P.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Princeton: PUP, 2007), 2.

3) ‘하나의 아해’ 종교에 대한 논의는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종파 형성의 정치적 성격”, 『신약논단』 15:2 (2008), 268.

4)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 및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는 박찬웅,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와 원시 기독교”, 『신약논단』 15:4 (2008), 861-894를 참조하라.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탈무드는 ‘연구’, ‘가르침/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미쉬나에 대한 주석을 가리킨다.⁵⁾ 탈무드는 1세기 후반(70년 성전멸망)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7세기 초(640 아랍 제국의 등장)에 완성되었는데 이 시기를 탈무드 시기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기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기간이기도 하다. 탈무드는 7세기에 완성된 바빌로니아 탈무드와 이보다 앞서 5세기 중반에 기록된 예루살렘 탈무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⁶⁾ 유대교 랍비 문헌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이다.⁷⁾ 그 이유는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탈무드이다.⁸⁾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그동안 유대교에 의해 핍박받는 위치에서 이제 유대교를 핍박하는 위치로 전세가 바뀌게 된다.⁹⁾ 그리하여 유대교의 대표적 문헌인 탈무드도 기독교 교회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매우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만 했다. 결국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많은 부분들이 불타버리고 유실되어 버렸다(1242년 파리에서). 이후 기독교 교회는 1263년 바르셀로나의 기독교와 유대교의 논쟁이후 탈무드 텍스트를 검열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공격적이거나 또는 불쾌한 모든 절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당연히 예수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들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탈무드의 예수 텍스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가장 초기의 증거자료들은 12세기 후반의 피렌체 사본이다. 그리고 가장 후대의 본문은 16세기 중반의 Yemeite 사본이다.¹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전제로

5) 김창선, 『쿰란문서와 유대교』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2002), 312-313

6) G. Stemberger, *Der Talmud. Einführung-Text-Erläuterungen* (München: C.H.Beck, 1982), 44.

7) J. D. 코헨, 『고대유대교 역사』, 황승일 역 (서울: 은성, 1994), 20-21.

8) J. Neusner, *The Talmud of Babylonian, An American Translation* (Chicago: Chico-Atlanta, 1984)

9) H. 쾨링, 『유대교』, 이신건 외 2인 역 (서울: 시와 진실, 2015), 232-233.

하여야 할 것은 연구 본문(예수 전승)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탈무드 전승은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관한 것이지 본문비평(Textkritik)이 아니기에 다른 사본들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1. 본론

1.1. 바빌로니아 탈무드 Sanhedrin 43^a : 예수의 수난과 죽음

1.1.1. 본문연구

본 문	해 석	설 명
והתניא	그러나 전해지고 있다	
בערב הפסח	유월절의 예비일에	"전날 저녁"을 의미한다.
תלאוהו לישו	그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접미 "그"와 예수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비평장치에 따르면 어느 사본에는 "나사렛 사람"이 첨가되어 있다.
והכרוז יוצא לפניו	그리고 전령이 그의 앞에 왔다.	
מל יום	40일 전에	내용상 앞 문장에 붙는 것으로 보인다.
יוצא ליסקל על שכושף	그는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 나왔다.	전령이 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והיריח את ישראל והיסית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부추겼고, 잘못 이끌었다.	비평장치에 있는 독법에 따르면 동사원형은 '두야흐'(דויה)이고 의미는 '씻다'이다.
כל מי שיודע לו זכות	누구든 그를 위한 면책 사유를 알고 있는 자는	
יבא וילמד עליו	그것을 가져와서 그를 위해 호소해야 한다.	
ולא מצאו לו זכות	그러나 그들은 그를 위한 면책 사유를 찾지 못했다.	
ותלאוהו בע"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의 예비일에 그를 매달았다.	

10) 유윤중, “유대교의 성서해석과 공시적 방법론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1 (2004), 72-73.

에레브(ערב)는 경우에 따라 해가 진 직후일 수도 있고, 해가 지기 전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서 유월절 전날 저녁일 수도 있고, 유월절 당일 늦은 오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에레브’에 유월절 양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유월절 준비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¹¹⁾ 예수(ישו)라는 이름의 원 이름은 예수아(ישוע)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불려지는 대로 약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¹²⁾ 예수 이름에 관한 모든 언급들은 본문비평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불확실성을 제시하지만, 유대 호교론자들이 주장하듯,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이름이기에 신약성서의 예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¹³⁾ 받아들이기 힘들다. 첨가어인 ban-nosri 는 뮌헨 필사본에서 발견되며, ‘나사렛’이라는 첨가어 또한 Firenze II.1.8-9 사본과 Karlsruhe 2사본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첨가어들은 사본들의 특성상 초기 중세의 표시로 보인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은 바빌로니아 Sanh 43^a와 바빌로니아 Sanh 67^a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사람들이 그를 유월절 전날 밤에 나무에 달았다”). 이후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수를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전형적으로 불려 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신 21:22의 내용은 이것을 위한 배경본문으로 매우 적절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위 본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1.2. 번역

유월절 전날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매달았다. 전령관은 40일전에 그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는 투석형에 처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11) 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10), 616.

12) K. Samuel, *Das Leben Jesu nach jüdischen Quelle*, Hildesheim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77), 251: 클라우스(S. Klaus)는 이러한 약식표현은 예수에 대한 적대적인 목적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13) M. Johann, *Jesus von Nazareth in der talmudischen Überliefer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92), 224.

그는 마법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으며 우상숭배(변절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변호할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와서 그를 위하여 그것들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어떠한 변호할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유월절 전날에 매달았다.

1.1.3. 해설

이 탈무드의 전승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유와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예수의 수난과 죽음에 관한 전승은 복음서에도 등장한다.¹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죽음의 직접적인 결정은 로마 정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형태는 십자가 처형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발의 내용이다. 탈무드는 예수가 고발당한 이유를 ‘마법’과 ‘잘못된 길로의 인도’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이끌었다”는 표현은 예수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당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일상적인 묘사이다.¹⁵⁾ 윈터(P. Winter)는 ‘마법’과 ‘잘못된 길로의 인도’가 정치적인 고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¹⁶⁾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의 인도’는 미쉬나에서 우상숭배나 신성모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도 예수에 대한 고발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신성모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⁷⁾ 그렇다면 예수의 고발이유는 신약성서와 비교해 볼 때 어느

14) 마 27-28; 막 15-16; 눅 22-24; 요 18-21

15) 바빌로니아 Sanh 107b; M. Johann, *Jesus von Nazareth in der talmudischen Überlieferung*, 228: 요한(Johann)은 이러한 정형화된 양식의 예로서 “Gehazi-Typ”을 제시한다.

16) P. Winter, *On the Trial of Jesu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4), 194.

17) 미쉬나 Sanh 6:4, 7:4. Sanh 6:4에서 랍비 엘리저(Eliezer)는 “투석형을 받을 자는 모두 나무에 달려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지혜자들은 말하기를 “단지 신성모독자와

정도 일치할까?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구체적인 예수의 발언을 신약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둘 사이의 일치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신성모독과 관련한 예수의 구체적인 발언은 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¹⁸⁾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¹⁹⁾ 등이 해당될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은 재판받는 예수에 대한 묘사를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대제사장파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공회 앞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정부의 관료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의 재판이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행동하며,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서 해석한다. 반면 빌라도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예수는 유대의 왕이 되길 원했다고 결정한다.²⁰⁾ 구약성서 레위기에도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는 투석형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다.²¹⁾ 신약성서는 마법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추측 가능한 장면을 예로 들자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으로 그를 고소하는 것이다.²²⁾ 이러한 고소는 아마도 탈무드의 편집자에 의해서 쉽게 마법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귀신 축출은 확실히 마술 및 메시아적인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²³⁾ 실제로 이것은 공의회 재판에 상정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셀수스(Celsus)가 예수가 이집트로부터 “어떤 마술적인 힘” 갖고 돌아왔다고 묘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는 이러한 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그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⁴⁾ 이처럼 신약성서의 신성모독

우상숭배지만 이 나무에 달려진다”고 말한다. 아마도 ‘나무에 달림’은 투석형으로 죽임을 당한 뒤에 벌어지는 일 일 것이다(신 21:21-23).

18) 요 5:18 등

19) 마 26:62-65; 막 14:61-64; 눅 22:66-71; 요 19:7

20) 마 27:17,22,29,37,39-43; 막 15:2,12,18,26,32; 눅 23:2-5,35,37,39; 요 18:33,37; 19:3,12 등.

21) 레 24:16

22) 마 26:61; 막 14:58

23) K. Samuel, *Das Leben Jesu nach jüdischen Quelle*, 30; 마 12:23f.

24) Origen, *Contra Celsum I:28*; Tr. Henry Chadwick (Cambridge: C.U.P), 1953, 28-31.

죄와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마법 또는 우상숭배는 서로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밖에 더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²⁵⁾ 특별히 처형과정에 관한 복음서의 설명은 미쉬나 처형의 과정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투석형에 이은 교수형은 신약성서의 십자가 처형과 분명히 매우 다르다.²⁶⁾ 물론 신약성서에서도 예수의 교수형에 대한 언급은 바울서신에 등장하지만²⁷⁾ 이것은 신명기 21:22이하를 인용한 것이기에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태와 마가는 재판의 진행을 위해 산헤드린이 증언자가 필요했음을 전해준다.²⁸⁾ 당시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경우 증언자는 거짓 증언을 피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상의 절차는 애초부터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쉬나의 규정과는 맞지 않게 산헤드린이 의도적으로 거짓 증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성전의 파괴와 (3일 동안)재건의 관한 고발을 상정하기 위해 율법에 의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서로 일치하는 두 개의 증거를 찾으려 했다.²⁹⁾ 예수는 이런 명백하게 조작된 고발에 응답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은 예수의 신성모독을 고발한다. 그들을 화나게 한 신성모독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지만³⁰⁾, 마태복음에서는 모호한 답을 한다.³¹⁾ 신성모독에 대하여 예수가 인정하였기에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을 통해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며³²⁾ 지체 없이 확정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기

25) Johann, *Jesus von Nazareth in der talmudischen Überlieferung*, 227.

26) m Sanh 4 와 5: 미쉬나와 게마리는 투석형 선고를 받는 자의 실행과정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반드시 모든 고소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낭독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피고인에게 있을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찾기 위함이다.

27) 갈 3:13

28) 마 26:59; 막 14:55

29) 마 26:60

30) 막 14:62: “내가 그로다”

31) 마 26:64: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 E. P 샌더슨, 『예수와 유대교』, 황종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401.

32) 마 26:65f; 막 14:63f

위해 예수를 로마정부로 인도한다.

전령사의 등장에 관한 보도는 바빌로니아 Sanh 6:1에도 등장한다. “만약 누군가가 투석형에 처해지면 전령사가 그 앞에 가서 전해야만 한다. ○○은 투석형에 처해질 것이며 ...그를 위해서 변호할 근거가 있는 사람은 와서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40일이라는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40일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라우터바흐(Lauterbach)는 이것에 대해 예수의 변호를 위하여 와서 논쟁하고 그러한 진술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일 것이라고 추론한다.³³⁾ 그러나 다른 숨은 의미가 있을 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신약성서 묘사에 대응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수난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의 도상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 그가 죽을 것이고 삼일 안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었고, 그것은 유월절 직전의 일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가정은 예수가 고발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형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을 차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다.³⁴⁾ 실제로 요 11:47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고 예수가 정식 재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며, 예수는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고 빈들에 가까운 곳에 머문다.³⁵⁾

사형형벌과 처형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신약성서와 탈무드의 매우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는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탈무드에 따르면 그는 랍비 법에 따라 돌에 맞고 그 이후에 매달린다. 이러한 두 형벌의 조합은 신약성서에서는 매우 드문 표현이지만, 미쉬나는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에 대하여 이런 두 형벌의 결합에 대하여 언도

33) J. Z. Lauterbach, *Jesus in the Talmud in Rabbinic Essays*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51), 494.

34) W. Bauer, *Das Leben Jesu im zeitalter der neutestamentlichen Apokryphen* (Tübingen: J.C.B Mohr, 1909), 378; J. Klausner, *Jesus of Nazareth* (New York: Macmillan, 1922), 30f.

35)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 11:53)

하고 있다.³⁶⁾

신약성서의 묘사가 더 역사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산헤드린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랍비 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따라야만 하는 즉 로마의 권위에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의 재판과 처형에 관한 탈무드의 보도를 역사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검열 받지 않은 사본들과 인쇄된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판본들은 예수가 처형당한 날이 유월절 전날임을 보고한다.³⁷⁾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상이거나³⁸⁾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자료는 한편으로는 요한복음과 매우 일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관복음서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된다.³⁹⁾ 마태, 마가, 누기는 예수의 재판과 실행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매우 모호하지만,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⁴⁰⁾, 축제의 첫째 날(니산월 15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언급한다. 반면 요한은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전의 어느 한 날에 있었음을 설명한다.⁴¹⁾ 그리고 재판도 빌라도 앞에서 유월절이 시작 하는 그 전날(니산월 14일) 정오에 개최되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예수가 니산월 15일(유월절 첫째 날)에 처형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반면, 요한복음만은 니산월 14일(유월절 전날)에 처형되었다고 말한다.⁴²⁾

36) 미쉬나 6,4; A. Büchler, “Die Todesstrafen der Bibel und der jüdisch-nachbiblischen Zeit”, *MGWJ* 50 (1906) 701f.

37) 바빌로니아 탈무드. Sanh. 67^a; 톨레돗 Sanh 10:11/ 예루살렘 탈무드 Sanh 7:16: “슈타다의 아들이 유월절 전날에 로드(Lod/Lydda)에서 교수형 되었다.”

38) 이 경우 요한의 ‘그리스도가 죽은 날에 대한 정보’(요 19:14)을 확증해 준다.

39) H. L. Strack/P.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II*, 843f.: “예수의 수난에 대한 탈무드 전승의 보도는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를 통해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가치가 있는 것은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사도 요한의 보도처럼 니산월 13일을 예수의 처형일로 보도하는 것이다”

40) 마 26:3f

41) 요 13:1f

42) 요 19:31a.

유대인들은 처형된 시신이 안식일을 지나 십자가 위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⁴³⁾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마 관료와 그의 황제를 이간(離間)시켰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이 세상에서 절대 원하지 않던 것이었다.⁴⁴⁾ 왜냐하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불충으로 여겨져 처벌될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탈무드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으며 즉각적으로 형(刑)을 선고 받았고 처형되었다.

이처럼 바빌로니아 탈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역설적으로 신약성서의 수난설화가 사실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탈무드 전승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신약성서 메시지의 완벽한 반전을 제시한다. 즉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전승을 통하여 예수 처형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이단자의 죽음을 위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의 살인자도, 빌라도가 그렇게 갖고자 원했던 유대 왕의 살인자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라 정량의 형을 받은 신성 모독자와 이단자를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처형한 것이다.

1.2. 바벨론 탈무드 Sanhedrin 43^a 끝부분: 예수의 다섯 제자

1.2.1. 본문연구

본 문	해 석	설 명
ת"ר		중간 삽표는 앞 문장이 반복되어 생략되었음을 가리킨다.
תלמידים היו לו לישו חמשה	예수에게는 다섯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נקאי נצר ובוני ותודה מתאי	그들은 마타이, 나카이, 네체르 그리고 부니 그리고 토다였다.	

43) 요 19:31b.

44) 요 19:12

אתויה למתי	사람들이 마타이에게 왔다.	여기서 '마토'(מתאי)는 앞에 '마타이'(מתאי)와 철자가 다르다.
אמר להו	그가 그에게 말했다.	להו의 형태가 남성 단수 접미 77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그에게(להו)"로 해석한다.
מתי יהרג	사람들은 마타이를 죽일 것인가?	'하라그'(הרג)는타동사임. '마토'(מתאי)를 목적으로 본다면 3인칭 단수 주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ה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케티브'(כתיב)는 형용사로 "쓰여져 있는"인데 여기에 관사가 붙어서 명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ואראה פני אלקים מתי אבוא	내가 언제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시편 42:3
אמרו לו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אין מתי יהרג	당연히 사람들은 마타이를 죽여야 한다.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케티브'(כתיב)앞에 붙어 있는 7은 관계사 -v, 대신에 사용되는 접두어이다.
מתי ימות ואבד שמו	언제(마타이) 그가 죽어서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인가?	마타이(이름)와 언제(마타이)의 언어유치(시 41:6)로 볼 수 있다.
אתויה לנקאי	사람들이 나카이에게 왔다.	
אמר להו	그가 그에게 말했다.	
נקאי יהרג	사람들은 나카이를 죽일 것인가?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ונקי וצדיק לא תהרג	너는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אין נקאי יהרג	정말로 사람들은 나카이를 죽여야 한다.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במסתרים יהרג נקי	은밀한 곳에서 무고한 자를 죽일 것이다.	
אתויה לנצר	사람들이 네체르에게 왔다.	
אמר	그가 말했다.	
נצר יהרג	사람들은 네체르를 죽일 것인가?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ונצר משרשיו יפרה	가지가 그 뿌리들로부터 열매를 맺을 것이다.	
אמרו ליה	그들이 말했다.	‘로’(ליה)는 ‘그에게’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אין נצר יהרג	정말로 사람들은 네체르를 죽여야 한다.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מקברך כנצר נתעב ואתה השלכת	너는 가증한 가지처럼 너의 무덤으로부터 던져졌다.	
אתויה לבוני	사람들이 부니에게 왔다.	
אמר	그가 말했다.	
בוני יהרג	사람들은 부니를 죽일 것인가?	
ה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בני בכורי ישראל	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다.	
אמרו לו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אין בוני יהרג	정말로 사람들은 부니를 죽여야 한다.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הרג את בנך בכורך הנה אנכי	보라 나는 너의 첫 태생인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אתויה לתודה	사람들이 토다에게 왔다.	
אמר	그가 말했다.	
תודה יהרג	사람들은 토다를 죽일 것인가?	
ה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מזמור לתודה	감사를 위한 시이다.	
א"ל	그들이 말했다.	‘로 아메루’(לו אמרו)가 축약된 것이다.
אין תודה יהרג	정말로 사람들은 토다를 죽여야 한다.	
דכתי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זובח תודה יכבדני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본문은 크게 예수에게 다섯 명의 제자가 있음과 그의 이름을 각각 소개하는 단락과 (A), 각각의 제자들과 재판관의 대화가 등장하는 단락(B)으로 나눌 수 있다. 단락 B는 다시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b), 제지는 변론하며(c), 사람들은 그를 처형하려는 판결(d)로 이루어져 있다. 제지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변호’(辯護)와 ‘판결’(判決)을 위해서 각각 구약성서의 본문들이 인용되고 있다. 마타이(Mattai)는 언어유희로서 히브리어인 matai(언제)를 두 번에 걸쳐 이용한다. 첫 번째는 시편 42:3 “마타이(Mattai)는 주님 앞에 와서 나타날 것이다”가 변호를 위해서 사용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문으로서 시 41:6 “마타이(Mattai)는 죽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소멸될 것이다”가 인용된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다른 네 명의 제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카이(Naqqai)를 위한 변호로는 출 23:7 “너는 나카이(Naqqai)와 의로운 자를 처형하지 말라”이 인용되며, 판결문으로는 시 10:8 “은밀한 곳에서 나카이(Naqqai)는 처형되었다”가 인용된다. 네체르(Necer)를 위한 변호로는 사 11:1 “네체르(necer)는 그의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가 인용되며, 판결문으로는 사 14:19 “가증한 네체르(Necer)는 그의 무덤으로부터 제하여진다”가 인용된다. 부니(Buni)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 베니(beni: 나의 아들)로부터 온 것이며, 부니(Buni)가 언급되는 출 4:22이 그를 위한 변호가 된다. 부니(Buni)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며 그러므로 처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출 4:23로 이집트의 첫 번째 태생은 반드시 처형시키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토다(Todah)를 위한 변호는 시 100:1인데 이 시편은 일명 ‘토다(Todah)를 위한 시’로 불려진다. 그리고 그를 위한 판결문으로는 시 50:23인데 “토다(Todah)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2.2. 번역

우리 랍비들은 다름과 같이 가르쳤다: 예수는 다섯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들은 마타이(Mattaj), 나카이(Naqqaj), 네체르(Necer), 부니(Buni), 그리고 토다(Todah)이다. 사람들이 마타이에게 왔다. 그가(마타이) 그에게(심판관) 말하였다: 사람들은 마타이를 죽일 것인가? 내가 어느 때(Mathaj)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이까? 라고 기록되었다(시42:3). 그들이 대답했다. “당연히 마타이는 처형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Mathaj) 그가 죽으며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가?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시41:6)”- 그들은 나카이를 데려왔다. 그가(나카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카이(Naqqaj)는 처형되어야 하는가? 무죄한 (Naqi) 자와 정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지 않는가? 라고 기록되었다 (출 23:7). “당연히 나카이는 처형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Naqi)를 죽이며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시 10:8)”

- 그들은 네체르(Necer)를 데리고 왔다. 그는 말하였다: 네체르(necer)는 처형되어야 하는가? 한 가지(necer)가 그의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다라고 기록되었다(사 11:1). 그들이 대답했다: “당연히 네체르(Necer)는 처형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마치 가증한 나무 가지(necer) 같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사 14:19).

- 그들은 부니를 데려왔다. 그가 말하였다: 부니는 처형되어야 하는가? 나의 아들(Beni), 나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출 4:22). 그들은 그에게 대답했다: “당연히 부니(Buni)는 처형될 것이다; 왜냐 하면 보라, 나는 나의 아들(binkha)을, 너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출 4:23)”

- 그들은 토다(Toda)를 데려왔다. 그가 말하였다: 토다(Toda)는 처형되어야 하는가? 한 시편은 감사(Toda)를 위한 시이다(시 100:1): 그들은 대답 하였다: “당연히 토다(Toda)는 처형될 것이다; 감사(Toda)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시 50:23).”

1.2.3. 해설

시작은 라반의 전승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전승은 초기 바빌로니아 탈무드 편집자들의 생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단락 “예수

는... 있었다” 와 “그들은 ...이다”는 ‘바라이타’(Baraita: 타나임 시대의 전승)로 간주되며, 그 이후의 반복되는 단락들은 후대 즉 아모라임 시대의 첨가로 보여진다.⁴⁵⁾ 따라서 이러한 “형식”이 바라이타에도 이미 존재했는지, 그것이 단지 후대의 산물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⁴⁶⁾ 전체 단락은 사 11:1의 메시아적인 해석과 관련이 있는 Jalqut ha-Makiri에게도 전승이 되어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네체르(Necer)가 인용되고 있다.⁴⁷⁾ 그리고 약간의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Toledot-Jeschu 에도 이 제자들의 명단은 등장한다.⁴⁸⁾

학자들은 전체 단락은 물론이고 각각의 전승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도 논쟁 한다.⁴⁹⁾ 특별히 ‘다섯’이라는 숫자는 독자로 하여금 커다란 흥미를 갖게 하는데, 쉐퍼(Schäfer) 는 이 다섯 명의 명단은 예수가 그의 12제자를 모두 만들기 전의 단계이거나 요한나 벤 지카이가 다섯 명의 유명한 제자를 가졌던 것과 같은 이유로 다섯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주장하기도 한다.⁵⁰⁾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제자그룹과 관련된 관습적인 숫자나 역사적인 회상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⁵¹⁾ 그 이유는 신약성서에서도 친밀한 제자그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⁵²⁾.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전승과

45)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76: 쉐퍼(Schäfer)는 전체 구성이 Baraita 시기 또는 바빌로니아 시대의 작품으로 간주할 것인지, 그리고 제자-명단은 Baraita의 것이고 이후의 설명은 후기 바빌로니아의 첨가인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가 주목하려는 것은 바빌로니아 전승이 초기 팔레스틴의 요소들에 의존하는가의 여부이다. 그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예수 제자 명단이 5명이 라는 것과 신약성서에서는 12명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둘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려한다.

46) J. Z. Lauterbach, *Jesus in the Talmud in Rabbinic Essays*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51), 554: 그에 의하면 형식은 바라이타이지만, 후대의 것이며 전설적이다.

47) J. Spira, *The Yalkut on Isaiah* (Berlin; Itzkowsky, 1894), 84.

48) K. Samuel, *Das Leben Jesu nach jüdischen Quelle* (Berlin: S. Calvary, 1902), 45, 172.

49) H. Leible, *Jesus Christus im Thalmud* (Bouton: Nathanael, 1890), 68.

50)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76.

51) C. H. Dodd, *Historical Tradition in the Fourth Gospel* (Cambridge: North Holland, 1963), 304.

52) 요 1:35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비교하는 연구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⁵³⁾ 손필드(Schonfield)도 이 전승 전체를 사도명단을 보도하는 기독교적 양식에 반대하는 대조적인 논박으로서 이해하였다.⁵⁴⁾ 레이블(Laible)에 따르면 이 숫자는 비웃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⁵⁵⁾ 골드슈타인(Goldstein)은 이 숫자를 기독교 안에서 존재했던 다섯 개 주요한 방향의 대표자들로 보려한다.⁵⁶⁾ 그러나 우리가 골드슈타인(Goldstein)에게 물어야 할 것은 왜 그러한 기독교적인 관계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5명 이외에 더 나은 대표자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약성서의 제자명단과 비교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마타이는 당연히 마태를 그리고 토다는 다대오를 연상시킨다. 다른 이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나카이는 아마도 니고데모(요 3:1)이거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니가노르(행 6:5) 아니면 니콜라당의 기독교적인 분파가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⁵⁷⁾ 헤어포드(Herford)는 나카이가 갖고 있는 ‘죄가 없는’이라는 의미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풍자적인 용법이 아닌가 제안하기도 하지만⁵⁸⁾, 다른 이는 복음서 저자 중 누가가 아닌가 의심한다. 그 이유는 누가(Lukas)의 이름 중 l 을 n 으로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이다.⁵⁹⁾ 네체르 라는 이름은 메시아적인 표기(nosri)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표시이

53) H. Hirschberg, “Simon Bariona and the Ebionites,” *JBL* 61 (1942) 180, (171-191).

54) H. J. Schonfield, *According to the Hebrews. A new translation of the Jewish Life of Jesus (the Toldoth Jeshu), w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its sources and special relationship to the lost Gospel according to the Hebrews* (London: Duckworth, 1937), 155f.

55) Laible, *Jesus Christus im Thalmud*, 68.

56) Goldstein, *Jesus in the jewish Tradition*, 111f.

57) H. Graetz, *Geschichte der Juden*, III/1, Leipzig: Leiner, 1886, 303; Laible *Jesus Christus im Thalmud*, 71.

58) Herford,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92f.

59) Kraus, *Das Leben Jesu nach jüdischen Quellen*, 171; Klausner, *Jesus of Nazareth*, 33.

다.⁶⁰⁾ 다른 의미들은 사도 안드레⁶¹⁾나 바울⁶²⁾을 가리킨다. 부니는 본문에서 벤(아들)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관련있다.⁶³⁾ 그러나 요한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 때문이다. 아니면 에보니(Ebjoni)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니는 매우 자주 니고데모의 축약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니고데모를 가리킬 수도 있다.⁶⁴⁾

반면에 라우터바흐(Lauterbach)는 이것을 제자명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 코크바 시대에 작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라고 주장한다.⁶⁵⁾ 왜냐하면 바 코크바 시대의 혼잡한 가운데 제자명단이 형성되었고 나중에 이러한 이름들은 장난삼아 가볍게 그리고 반어적으로 빈정대듯이 해석되었기 때문이다.⁶⁶⁾ 이러한 연구들 보다 더 명백한 해석은 메이어스(A. Meyers)의 주장인데, 그는 하나의 명단이 이차적으로 예수제자들의 명단으로 왜곡 해석되었다고 한다.⁶⁷⁾ 이러한 주장이 갖는 장점은,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혼란한 행동을 했다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거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이름들에 대하여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는 제자명단과 관련된 필요한 연상(聯想)을 불러일으키기

60) Herford,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93f; M. Friedländer, *Synagoge und Kirche in ihren Anfängen*, Berlin: Georg Reimer, 1908, 141f.; Stracke op.cit., 43f (그는 ‘예수’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61) Klausner, *Jesus of Nazareth*, 33.

62) H. L. Strack/P.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München: C. H. Beck, 1922), II, 418: 바울은 ‘만삭이 돼서 나지 못한 자와 관련이 있다.

63) Herford,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93f.

64) Graetz, *Geschichte der Juden*, III/1, 303; Laible, *Jesus Christus im Thalmud*, 70.

65) Lauterbach, *Rabbinic Essays*, 559.

66) Herford,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93f.; Kamensetzky, *Ha-Tequfah*, 512.

67) A. Meyer, “Jesus, Jesu Jünger und das Evangelium im Talmud und verwand jüdischen Schriften,” in: E. Hennecke, *Handbuch zu den neutestamentlichen Apokryphen* (Tübingen: Mohr, 1904), 64.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면 충분하다.

각각의 제자들은 변증과 처형판결의 문답형식으로 그들에게 탁월 운명에 대하여 암시한다. 또한 이 다섯 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모습을 대항하거나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수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마타이는 시 4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십자가상의 예수께서 인용한 본문이며, 절망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묘사한다. 복음서가 십자가상의 예수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과 시편 42:9절 이하를 비교하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⁶⁸⁾라고 외칠 때,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만약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한다.⁶⁹⁾ 만약 “내 뼈를 찌르는”이라는 표현이 뼈의 부서짐에 대한 언급이라면, 우리는 요 19:31-34의 언급에서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거기서 군인들은 예수와 두 강도의 다리를 꺾기 위해 다가서지만,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뿐이며, 예수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면하나 그 대신에 그의 옆구리가 창으로 찢린다. 이러한 배경과 반대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의 마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된다: 당신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할 수 있소 심지어 당신이 나를 처형한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전에 곧 나타날 것이요 이에 대해 심판관은 ‘아니다, 마타이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이것 뿐 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소멸될 것이고, 그는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부활도 없고 따라서 그를 믿고자 끊임없이 따르는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카이 (Naqqai) 역시 예수와의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빌라도는 그의 재판

68) 마 27:46; 막 15:34

69) 마 27:39-44; 막 15:29-32; 눅 23:35-37

속에서 명쾌하게 그의 무죄함(naqi)을 선언했으며⁷⁰⁾, 그리고 예수를 처형하고자 원치도 않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원했다. 그래서 나카이(Naqqai)는 실제로 그의 부인에게 탄원하는 무죄한 그리고 의로움을 주장하는 예수이다(그는 복음서에서는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의 무죄함에 대한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무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의 이름이 ‘Naqqai’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묘사들은 예수의 죄 없음과 무고함에 대한 묘사를 상징한다고 볼 때, 유대인들은 그는 유죄하며 죄 없다는 것은 그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에 대한 언급 이래로 메시아적인 암시는 따르는 ‘제자들’과 관련하여 더 강해졌다. 네체르에 관해서는 이사야 11:1 이하가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서 가장 고전적인 성서 본문이다. 그의 뿌리로부터 위로 자라는 가지(necer)는 실제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리키며, 그것은 바로 신약성서가 예수의 다윗 계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설립한 이러한 다윗의 관계성이다. 예수,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이러한 다윗의 주장에 대항하여 심판관은 이야기를 매우 다르게 설정한다. 네체르, 너는 절대 다윗의 계보로부터 오지 않았고 이사야 14:19을 인용하여 무덤에서 파헤쳐진 “기증한 나뭇가지”이며 “칼에 찢려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인 밍글한 시체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암시라기보다는 신약성서의 예수 부활에 대한 주장에 정반대되는 설명이다. 심판관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무덤은 파헤쳐 질 것임을 선언함으로 부활이 없음을 선언한다. 부니(Buni)와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란 점이 부각된다. 부니의 이러한 설명은 예수의 하나님 아들과 연관하여 볼 때 가장 메시아적인 표현이다. 시 2:7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약성서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며, 시편 2:7을 연상케 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70) 마 27:19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린다⁷¹⁾.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관하여 요약하여 설교할 때에도, 그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7을 인용한다.⁷²⁾ 또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시편 2:7을 인용한다.⁷³⁾ 이러한 신약성서의 묘사들은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본문들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판관은 ‘너 어리석은 자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던 저 못된 이집트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이다.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칭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며 폭압자의 자손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다(Todah)는 예수의 마지막 제자이다. 히브리어로 토다의 의미는 ‘감사’ 그리고 ‘감사절’을 의미하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감사 제물’이 된다. 제자 토다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감사 제물이며 찬송이지 처형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관은 그에 반대하여 “반대로 너는 처형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고 선언한다. 심판관은 신약성서가 선포하는 이른바 예수는 새로운 계약을 위한 희생이며, 세상 죄를 담당할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무드의 저자 혹은 편집자는 예수나 예수의 제지들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보다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자는 예수의 제지들도 그의 선생처럼 처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부적인 재판이나, 고발, 유죄판결과 사형 선고 같은 양식이 없다. 다섯 명은 단순히 죽음에 놓였고, 그들이 당했던 처형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가 당한 것과 같은 고소, 즉 미술과 우상숭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처형이후에 즉각적으로 재판에

71) 막 1:10f; 마 3:16f; 눅 3:21f.

72) 행 13:33

73) 히 1:5

회부되어 처형되었다는 것으로 덧붙여진다. 이러한 낯선 정황은 이미 저자 혹은 편집자가 어떻게든 예수와 제자 사이에 경계를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똑같은 종류인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이름이 사도 마태를 암시하는 마타이(Mattai)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명의 제자들은 12제자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지는 않는다. 설령 마타이를 포함하여 이들이 제자명단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역사적 정보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5명의 이름이 (Mattai를 포함하여) 제자들의 변호와 판결문을 위해 사용된 구약의 성경 구절들에 따라 의도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구약성서 구절과의 이 싸움은 단순히 예수의 제자들이 절망적으로 사형을 피하기 위해 싸우는 모의재판의 한 종류가 아니다. 실제로는 예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예수의 운명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에 관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흥미롭고 대단히 복잡한 분쟁이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주장은 그가 실제로 다윗 자손의 메시아이며,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진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잔인한 처형 뒤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의 이러한 죽음은 새로운 계약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제물이며, 이 계약은 옛 것을 대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다.⁷⁴⁾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의 재판과 처형의 이야기에 대한 말장난이나 의미 없는 부가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와 기독교에 관한 바빌로니아 탈무드 논의의 정점을 이루는 전승이다.

나가는 말

탈무드 전승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 Sanh. 43^a 외에도 예수에 관한 전승들

74) 왕대일, “유대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희생 제물의 경우”, 『Canon&Culture』 3:1 (2009), 85.

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본문만 갖고 ‘탈무드에 나타난 예수’의 모든 모습을 정의내리거나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탈무드 전승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초(端初)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Sanh. 43^a에 나타난 탈무드 전승의 역사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 탄생 전 후 몇 세기 동안 유대교에는 많은 분파들이 존재했었고 이들 중 몇몇 분파들은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이들 중 어떤 분파들은 자신의 상황을 논쟁적으로 옹호하면서 기록하였을 것이고 때때로 라이벌 분파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당 대 유대교의 많은 분파 중 하나로 여겨졌을 것이고, 1-2세기에는 유대교 안에서의 세력이 미미하였지만 3-4세기 들면서 점차 유대교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며, 유대교와의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탈무드에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묘사들은 이러한 분파간의 대결의 표명일 수도 있으며, 간접적으로 반대 분파(기독교)를 비판하려는 탈무드 랍비 작가들의 반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 탈무드 안에 있는 언급들은 어쩌면 ‘신약성서 이야기를 꽤러디한 논쟁적 반박화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도 하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는 핍박 받던 초기의 열세를 딛고 오히려 점점 유대교와 대등하게 논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세기경에는 오히려 유대교를 핍박하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다. 유대교가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당연 ‘예수를 죽인 것’이며, 유대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자’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보여 주어야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면 왜 탈무드 전승에서 예수의 죽음을 그리 치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당화’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예수는 정치적인 죄로 로마인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로 유대인에 의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미평한 것이며, 그것을 위한 모든 절차 또한 옳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약성서의 보도가 더 역사적일 수 있게 된다. 예수의 다섯 제자 보도에서도 이러한 유대적인 악의의(?) ‘편집’경향은 계속된다. 탈무드 저자는 예수의 제자들도 그의 선생처럼 처형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 또한 구약 성서의 기록을 따른 당연한 것임을 전제한다. 당연히 예수의 처형처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보도 또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짧은 연구로부터 적어도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Sanhedrin 43^a의 본문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일방적인 비난에 변호하고자 하는 유대교의 반응이라는 것과 둘째, 이 본문은 탈무드 저자들 앞에 현존하는 기독교에 대한 문서적 편집행동이지, 예수의 종교적 재판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어>

탈무드, 유대교, 기독교, 예수, 바빌로니아

<Key Words>

Talmud, Judaism, Christianity, Jesus, Babylonia

* 접수일 2017년 8월 31일, 수정일 2017년 10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28일

참고문헌

- 김창선, 『쿰란문서와 유대교』,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2002.
-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종파 형성의 정치적 성격”, 『신약논단』 15:2 (2008), 265-297.
- 박찬웅,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와 원시 기독교”, 『신약논단』 15:4 (2008), 861-894
- 유윤중, “유대교의 성서해석과 공시적 방법론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1 (2004), 69-94.
- 왕대일, “유대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희생 제물의 경우”, 『Canon&Culture』 3:1 (2009), 67-95.
- H. 쾨링, 『유대교』, 이신건 외 2인 역, 서울: 시와 진실, 2015.
- E. P. 샌더슨, 『예수와 유대교』, 황종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 J. D. 코헨, 『고대유대교 역사』, 황승일 역, 서울: 은성, 1994.
- Bamberger, B. J., “Jewish Social Studies”, Vol.15 (3/4), New York: Conference on Jewish Social Studies, 1953.
- Bauer, W., *Das Leben Jesu im zeitalter der neutestamentlichen Apokryphen*, Tübingen: JCB Mohr, 1909.
- Büchler, A., “Die Todesstrafen der Bibel und der jüdisch-nachbiblischen Zeit,” *MGWJ* 50 (1906) 701f.
- Dodd, C. H., *Historical Tradition in the Fourth Gospel*, Cambridge: North-Holland, 1963.
- Eisenmenger, J. A., *Entdecktes Judenthum*, Frankfurt: Karl Rohm, 1700.
- Epstein, I., *The Babylonian Talmud.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notes, glossary and indices*, 35 Vols., London: The Soncino Press, 1935-1952.
- Friedländer, M., *Synagoge und Kirche in ihren Anfängen*, Berlin: Georg Reimer, 1908.
- Gesenius, W.,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10.
- Goldschmidt, L., *Der Babylonische Talmud*, 12 Vols., Berlin: Biblion,

1929-36.

Goldstein, M., *Jesus in the Jewish Tradition*, New York: Macmillan, 1950.

Graetz, H., *Geschichte der Juden* III/1, Leipzig: Leiner, 1886.

Herford, T.,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London: Williams & Norgate, 1903.

Hüttenmeister/P. Schäfer, *Übersetzung des Talmud Yerushalmi, Tübingen: Mohr, 1975.*

Kamensetzky, A. S., *Rez. Ha-Tequfab* 18 (1923) 509-515.

Klausner, J., *Jesus of Nazareth*, New York: Macmillan, 1922.

Krauss, S., *Das Leben Jesu nach jüdischen Quellen*, Berlin: S. Calvary, 1902.

Lauterbach, J. Z., *Rabbinic Essays*, Cincinnati: HUCP, 1952.

Leible, H., *Jesus Christus im Thalmud*, Bouton: Nathanael, 1890.

Maier, J., *Jesus von Nazareth in der Talmudischen Überliefer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8.

Meyer, A., *Jesus, Jesu Jünger und das Evangelium im Talmud und verwandten jüdischen Schriften*, in: E. Hennecke, *Handbuch zu den neutestamentlichen Apokryphen*. (Tübingen: Mohn, 1904), 64.

Meelfuhrer, R. M., *Jesus in Talmude*, Altdorf: U. A, 1699.

Neusner, J., *The Talmud of the Land of Israel. A Preliminary Translation and Explanation*, 35 Vols., Chicago-London: The Uni. of Chicago Press, 1982.

_____, *The Talmud of Babylonian, An American Translation*, Chico-Atlanta, 1984.

Origen, *Contra Celsum* I:28; Tra. Chadwick, 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Schäfer, P., *Jesus in the Talmud*, Oxford: PUP, 2007.

Schonfield, H. J., *According to the Hebrews. A new translation of the Jewish Life of Jesus (the Toldoth Jeshu), w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its sources and special relationship to the lost Gospel according to the Hebrews*. London:

- Duckworth, 1937.
- Spira, J., *The Yalkut on Isaiah*, Berlin; Itzkowsky, 1894.
- Stemberger, G., *Der Talmud. Einführung-Text-Erläuterungen*, München: C.H.Beck, 1982.
- Strack, H. L., *Jesus, die Häretiker und die Christen: nach den ältesten jüdischen Angaben*, Leipzig: Hinrichs, 1910.
- Strack, H. L./Billerbeck, P.,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München: C. H. Beck, 1922
- Winter, P., *On the Trial of Jesu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4.

<초록>

탈무드전승에 나타난 예수 연구

-바빌로니아 탈무드 Sanh. 43^a를 중심으로-

김충연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유대교의 대표적 문헌인 탈무드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의 전승에 관한 연구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와 탈무드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약성서는 주로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지만 탈무드는 1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7세기경에 바벨론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언어적으로도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수의 탄생, 사역, 수난,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반면, 탈무드는 대부분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내용도 유대교 율법에 대한 해석과 토론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에 신약성서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려진 예수와 탈무드의 보도 중 어느 것에 역사적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며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유대교는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묘판(苗板)과 같아서 유대교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으며,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유대교와의 관계 및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 특히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묘사는 유대교 안에 반영된 예수와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그 학문적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의 신약학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므로 바라기는 이 연구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토대가 되길 바라며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 예수(출생, 수난, 죽음,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에 대한 많은 다양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Abstract>

**The Study of Jesus in talmudic Tradition:
With Babylonian Talmud Sahn. 43^a**

Dr. Chung-Yoen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the tradition of Jesus of Nazareth in the Talmud which is the representative document of Judaism. Perhaps people can ask what sort of commonality you can find between Jesus and the Talmud because in terms of time, the story of Jesus was written mainly in the first century but the Talmud was started at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and finally completed in Babylon in the seven the century. Literally, the New Testament is written in Greek, and its content deals with the birth, ministry,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hile the Talmud is mostly written in Aramaic and its content is mainly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of Judaic law. In addition, Judaism and Christianity are in a hostile relationship, so it is very cautious and difficult to give more historical value to either the Jesus who is known through the New Testament

gospels and the Talmudic reports. However, the fact that it cannot be denied is that Judaism is like a trestle to Christianity, so we cannot imagine Christianity without Judaism, and certainly we can better understand Christianity through this relationship and comparative study with Judaism. Therefore, their vision and description of Christianity, especially Jesus, as they see it will be a key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 at that time, and hoping that it will be helpful to study and understand Jesus and early Christianity reflected in Judaism.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at this research will be a good basi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 it is an unexplored field that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Korean New Testament studies so far compared to its academic importance. And there is an opportunity to provid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and insights on Jesus in Judaism furthermore, on historic Jesus (birth, suffering, death, and Mary and his family and disciples).